

재일(在日) 한인 소설 연구

-김학영과 이양지의 소설을 중심으로

송명희(부경대) · 정덕준(한림대)

<목 차>

- | | |
|--------------------------|-----------------------|
| 1. 서언 | 3. 정체성 갈등과 승화, 「나비타령」 |
| 2. 민족콤플렉스와 말더듬, 『얼어붙은 입』 | 4. 결어 |

1. 서 언

재일(在日) 한인¹⁾의 이주는 일제강점과 그 역사를 같이한다. 1910년을 전후하여, 우리 민족은 급격히 몰락해가는 농촌생활을 벗어나기 위하여 러시아·중국·일본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일본으로의 이주는 1939년 이후 급증하는데,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송출된 노동자·농민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토목·광산·부두의 하층 노동자로 전락, 민족적인 차별과 가혹한 핍박을 감내하며 생존해온다.

1945년 광복 당시 200만 명에 이르는 재일 한인 중 140만 명은 귀국선에 오르지만, 고향에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들을 비롯, 남북 분단·한국전쟁 등 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현지에 잔류한 사람 역시 적지 않았다. 패전

후, 일본 정부는 재일 한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일본의 제반 법제도에서 축출하는 조치를 취하고, 외국인 등록과 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하는데, 1947년 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재일 한인은 약 6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재일 한인을 일본사회로부터 배제하려는 정책으로 일관, 직장·공직·참정권 등 갖가지 차별을 강요한다. 오늘날 재일 한인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일본인과 결혼하여 귀화하는 2, 3세대가 증가하고, 민족교육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일본 사회와 문화로 급속히 동화하는 것들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에서 연유하는 결과적 현상에 다름 아니다.²⁾ 재외동포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5 현재 90만 명(150만 명이라는 설도 있음)에 달하는 재일 한인들이 한국이나 북한 국적을 지니고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

재일 한인문학은 이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이러한 차별과 억압의 현실을 꺾진하게 담아 내보이는 한편,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뇌하고 저항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재일 한인문학의 토대 마련에 크게 이바지한 2세대 작가들이 특히 그러하다. 이들은 6, 70년대 일본 사회의 경제발전과 냉전 이데올로기를 체험한 세대로, 영주(永住)를 모색하는 의식의 변화와 함께 조국을 강하게 인식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 세대는 일본 패망 이후에 지속되어온 민족적 차별과 이로 인한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실존, 재일 한인으로서의 생활과 사고방식 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들의 소설에 ‘조국’(민족)과 ‘재일’ 사이에 놓인 자신의 위치, 정체성에 대해 갈등하고 고뇌하는 ‘경계인 의식’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회성·김학영·종추월 등은 그 대표적인 작가인데, 이회성·이양지·유미리·현월 등이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아쿠타가와(芥川)상을 수상하고, 일본 문단에서 재일 한인문학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2세대 작가들의 문학적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

재일 한인 2세대 작가들은, 1세대 작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민족의식과 분단 이데올로기를 축으로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저항이라는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079-AS0113).

1) 일본에서는 남과 북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으로 구분하지만, 여기서는 재일한인으로 통칭한다.

2) 이에 대해서는 윤건차,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가져다준 분열의 노래」, 한일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 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 14-15면/ 김광열, 「재일 조선인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한일민족문제학회 엮음, 앞의 책, 71-73면/ 최영호, 「재일 동포의 슬픈 현실」, 한일관계사학회,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1』, 자작나무, 1998, 270면 참조.

거대 담론을 그 중심 테마로 삼고 있다. 이와는 달리, 3세대 작가들은 이를 탈피하고 재일 한인이라는 일본 내의 특수한 삶의 조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성향을 드러낸다. ‘재일’을 민족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개인적 문제, 인간 존재의 의미와 현대인의 고독 등 보편적 문제의식으로 제기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대 작가들은 ‘재일’이라는 특수한 현실은 ‘민족’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한다. 재일 한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갈등을 주목,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이양지는 그 한 예이다.³⁾

김학영을 비롯한 2세대 작가들, 그리고 이양지 문학에서 정신 병리의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재일 한인사회의 세대적 특성과 관련된다. 이들은 조국(한국)과 거주국(일본) 사이에서 정체성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재일 한인 2세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이들 주인공은 일본인처럼 성장하고 교육 받은, 일본인 같은 재일 한인들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들 주인공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차별을 하고, 민족 콤플렉스를 자극한다. 이 때문에 이들 주인공은 갈등하고 스트레스에 빠져든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말을 더듬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은 물론, 일본인으로부터 살해당하는 피해망상, 일본인을 죽이고 싶은 살해 충동에 빠지는 등 정신분열증마저 나타낸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러한 심리 기제는 프란츠 파농이 지적⁴⁾한 바와 같이 이들 주인공의 민족적 열등감에서 연유한다. 바꿔 말하여, 김학영과 이양지의 소설에 나타나는 정신 병리는 그들이 일본에서 출생하여 자라고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사회의 차별받는 타자라는 존재감, 즉 재일 한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인 ‘조센징(조선인)’이라는 민족콤플렉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조센징’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

3) 이 때문에 이양지를 2세대 작가로 보기도 한다. 김환기는 이양지를 2세대 작가지만 3세대와 동일한 문학성을 추구한 작가로 평가한다(김환기, 『이양지의 『유희』론, 『일어일문학연구』 41-문학·일본학편, 한국일어일문학회, 2002.5, 233-234면).

4)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백인사회에서 식민주의에 길들여진 흑인에게 있어 정상과 비정상을 분별하는 준거는 백인인가 아닌가에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한 흑인아이라 하더라도 백인사회와의 피상적인 접촉만으로도 비정상적인 아이로 변해버린다. 흑인의 열등감은 백인의 가면을 쓰고 백인처럼 살아가다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181면.

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취급되는 준거이며, 근원적 외상(trauma)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재일 한인 소설작품에 재현된 정신병리 현상에 특히 주목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재일 한인사회 2세대들이 겪는 정체성 갈등과 좌절, 광복 후 재일 한인들에게 나타나는 포스트식민주의의 본질을 정신병리적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과 3세대 작가 이양지의 『나비타령』을 탈식민주의 정신분석비평 방법으로 접근, 이들 작품이 내보이는 소설적 진실과 주제적 특성, 그 문학적 성과를 밝혀보고자 한다.

2. 민족콤플렉스와 말더듬, 『얼어붙은 입』

1) 말더듬과 우울증

김학영(1938~1985)은 재일 한인문학 2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1966년 첫작품 『도상(途上)』을 발표한 후, 『얼어붙은 입』으로 문예상을 수상한다. 그의 작품은 1973년부터 수차례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⁵⁾ 그의 소설은 ‘반쪽마리’로 살아가는 ‘재일’의 어려움을 문제 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그러나 그는 갖가지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재일’의 어려움을 그리는 데 국한하지 않고, 재일 한인사회 내부에 눈을 돌려 민족의 이념에 동화하지도 못하고 일본사회에 적극적으로 안주하지도 못하는 2세대 한인들의 고뇌와 갈등을 담아내기도 한다.⁶⁾ 한편, 그의 문학의 주 모티브는 자신의 말더듬, 민족문제, 정체성의 혼란, 아버지의 폭력, 연애의 파탄, 조모의

5) 1938년 군마현에서 재일 한인 2세로 태어남. 본적은 경남. 아버지가 12세 때 할아버지와 함께 독일했으며, 할머니는 일본에서 자살했다. 대학 입학 전까지 야마다(山田)라는 일본명을 사용하다가, 입학 후 본성(本姓)인 ‘김(金)’을 사용함. 동경대학에서 공업화학을 전공, 학사·석사에 이어 박사과정까지 입학하지만 중퇴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학영, 하유상 역, 『얼어붙은 입』(『한국문학』 1977. 9. 별책 부록)의 ‘연보’ 참조.

6) 이한창, 『재일교포문학연구』, 『외국문학』 1994년 겨울호, 93-94면.

죽음 등이며, 이는 데뷔작에서 유고작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고 있다.⁷⁾

『얼어붙은 입』은 작가 자신의 말더듬이 장애를 집요하게 분석한 작품이다. 1인칭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최규식은 서술 시점의 현재 동경대학 공업화학과 대학원생이다. 그는 연구회에서 3개월마다 실험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 때가 되면 말더듬도 심해지고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진다. 그의 말더듬의 강약의 주기적인 커브는 연구회의 발표 주기와 관계가 있다.

요즘은 또 묘한 숨 가쁨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온종일 무엇인가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쫓기어, 그리고 어딘가에 휘몰리는 것과 같은 상태의 기분이었다. ‘말더듬이의 골짜기’ 때문일까?

요 근래 또 몹시 말을 더듬고 있었다. 소리가 막힌다. 스스로도 이상하리만치 말이 안 나온다. 그와 같은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기가 주기적으로 닥쳐온다.⁸⁾

그는 자신의 말더듬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계항진 같은 불안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불안을 넘어서서 공포마저 느낀다. 하지만 그는 말더듬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굴욕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말더듬을 고치기 위해 5년 전부터 매일 30분씩 교정연습을 하지만, 효과가 없다. 그의 말더듬은 기능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인 장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서 낭독을 할 때는 말을 더듬거리지 않는다. 그보다 말더듬이 심했던 일본인 이소가이와 말할 때에도 전혀 말을 더듬거리지 않고 오히려 달변이다. 또한 영어나 독일어·프랑스어를 읽을 때에도 전혀 더듬거리지 않는다. 다만 그는 연구실의 일본인 동료들 앞에서 일본어로 발표할 때에 말더듬도 심해지고, 정체불명의 불안감에 시달린다. 생각이 제때 말이 되어 발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방인 의식을 느끼며 심리적 긴장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실에 있을 때 매일 같이 나를 습격하는 정체불명의 숨 가쁨은 여

7) 유숙자, 『김학영론』, 『재일한국인문학』, 월인, 2000, 234-252면.

8) 『얼어붙은 입』, 15면. 이하 본문에서의 인용은 면수 밝히지 않고 “ ”로 표시함.

전하였다. 그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 딴 사람의 눈에는,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연구실에 있을 때 나는 웬일인지 숨 가빠져서 견딜 수가 없다.⁹⁾

일본인들 앞에서 일본어로 말을 해야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그의 말더듬이는 일종의 사회공포증이다. 사회공포증이란 특정한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남을 의식하여 불안이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불안 장애의 일종이다. 그의 경우, 남 앞에 나가 발표할 때 겪는 장애이므로 연단공포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 동료들이 그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실험실의 분위기에 융화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이며, 그 스스로 이방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말이 제대로 발화되지 못하니 타자의 식에 사로잡혀 소외감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은 말이다. 사람과 만날 때마다 교환되는 것은 말이며, 그것이 거의 전부이다.”라고까지 생각한다. 그런데 말더듬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가 주는 불편함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남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인간적인 소통의 장애는 그로 하여금 불편을 넘어서서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 슬픔이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한다.

실제 그것은 뭐라고 할 무계일까! 이런 때는 유별나게 모든 것이 울적하고, 모든 일이 매우 귀찮게 느껴진다. 걷는 것도 울적하고, 밥을 먹는 것도 울적하고, 전차를 타고 연구실에 가는 것도 울적하고, 의욕도 없는 실험에 체력과 신경을 닳게 하는 것 등은 더더구나 울적하고, 호흡하는 것조차도 울적하다는 느낌이 다.¹⁰⁾

우울증은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심리적 결과이다. 전문 용어로 조울정신병(manic-depressive psychosis)이라는 정신장애로서, 가장 심각한 증세는 자살이다. 이 작품에서 자살은 주인공 및 작가의 분신이기도 한 이소가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9) 『얼어붙은 입』, 18면.

10) 『얼어붙은 입』, 45면.

2) 민족콤플렉스가 유발한 분노와 무력감

주인공 최규식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았지만, 그는 일본인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도 없고, 재일 한인 1세대처럼 확고한 민족의식도 없다. 그의 “한국인 의식은 항상 관념으로서의 민족의식이 실감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 그리고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쭉 일본”에서 다녔으며, “한국에서 떨어진 곳에서, 또는 격절된 곳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다. 자연히 그는 “한국의 일에 소홀하고 또 민족의식도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는 희박해진 민족의식을 학습을 통해서 회복, 아니 각성시키려 한다. 그가 회복하려는 민족의식이란 “나 자신이 한국인이고 일본인이 아니란 것을, 아무리 일본인처럼 행세하고 일본인과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어도 결코 일본인이 아니란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한국사, 해방투쟁사, 남북한의 시사문제에 관한 잡지” 등의 책을 읽으며 한국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의 의식은 묘하게 우울하고 기분이 무거워진다. 한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과거 한국의 비참한 역사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현재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가 일본인 앞에서만 말을 더듬고, 타자의식을 느끼고, 이방인의식을 느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전차 속에서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매일처럼 나 자신이 한국인이란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져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묘하게 우울해지고 기분이 무거워진다.

왜 그럴까? - 그것은 그 한국관계의 책이란 것이 꼭 한국 민족의 비참한 역사에 붓을 대고 한국인 동포문제가 극히 가까운 과거까지 억압되고 학대의 상황 속에서 살아와 오늘날 현재도 아직 비참과 고뇌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란 존재가 실은 그런 상황의 위에서 있다는 것, 과거에 그들이 체험하고 지금도 아직 체험하고 있는 것은 자신과 무관계한 나라 사람의 체험이 아니고, 도리어 자신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할 동포의 사실이란 것, 그런 것들을 나는 새삼스레 알게 되어 충격을 받고 생각게 되었기 때문이다.¹¹⁾

11) 『얼어붙은 입』, 51-52면.

그는 독서를 통하여 포스트식민의 현재와 식민 과거의 실상을 알게 된다. 재일 한인들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범죄가 성립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재일 한인이 받는 차별은 법적 차별만이 아니다. 재일한인에게 세금은 일본인 이상으로 엄격히 부과되지만 생활보호의 할당은 적으며, 공영주택의 입주도 허락되지 않고, 주택공단자금도 대출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실업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 차별받고 소외당한다. 일본인으로 살아가 수 없도록 각종 사회적 차별을 가하면서도 정작 일본은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의 민족교육을 금지하고, 국적선택의 자유도 빼앗으며, 조국에의 왕래도 규제한다. 재일한인이 겪고 있는 각종 차별과 억압을 독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차별이 지난날 한국을 침략하여 착취한 데 대한 보상이나 반문한다. 그리고 “조용한 그러나 뿌리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의 이방인 의식은 그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타자의식에서 연유하는 것만은 아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과 현재 일본인의 민족적 편견과 불가시적인 차별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릇된 우월감을 가진 일본인을 설득할 수 없다는 무력감 등 민족콤플렉스가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신체적 장애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¹²⁾ 다시 말하여, 그의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이 그를 정체성의 갈등에 휘말리게 하고, 우울증에 빠져들게 하고, 말더듬을 유발시켰던 것인데, 이것은 재일 한인의 피할 수 없는 근원적 외상이며, 거대한 좌절에 다름 아니다.

주인공은 말더듬의 괴로움을 이소가이의 여동생 미찌코와의 성애를 통해 잊고자 한다. 그러나 자기구원에 실패한다. 미찌코는 그의 말더듬으로 인한 고통을 알지 못하며, 그는 미찌코가 아는 것 자체를 굴욕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인 미찌코가 재일 한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갈등과 그로부터 유발되는 말더듬의 고통을 결코 이해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는 고독하다.¹³⁾ 하지만 그의 고독은 결코 보편적 인간으로서 겪는 고독이 아니

12) 이것은 전환(conversion)의 일종인데, 전환이란 심리적 갈등이 신체 감각기관과 수의근육계의 증세로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2003, 201면 참조.

13) 이를 두고,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고독과 쓸쓸함은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보편의 삶의 고독과 쓸쓸함으로 표출하였으며, 이 점에서 일본 근대문학의 독특한 장르인 사소설의 전통과 잇닿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유숙자, 『김학영론』, 『비교문학』24, 한국비교문

며, 일본 사소설의 전통을 계승한 것도 아니다. 작가 자신이 “말더듬이를 따지고 들어가면, 왜 한국인이면서 일본으로 흘러 들어와 살게 되었느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근원을 찾다보면 민족 문제에 이르게 된다.”고 밝힌 것처럼,¹⁴⁾ 그것은 법적·사회적 차별과 불가시적 편견 속에서 2세대 한인들이 겪어야 하는 민족적 고독이고 고통이다.

3) 자살과 가정 폭력의 의미

『얼어붙은 입』에서, 주인공은 이소가이의 자살에 대해 동일시 감정을 강하게 느낀다. 그는 영어시간에도 이소가이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더듬거리자, 자신이 더듬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며 대신 읽어주고 싶어 할 정도로 동일시 감정을 느꼈었다. 이소가이가 같은 말더듬이인 탓도 있지만, 한국인인 그를 편견 없이 대해 주기 때문이다. 이소가이 역시 주인공을 유일한 친구로 여긴다. 이소가이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지만, 주인공 앞으로 대학 노트에 쓴 일기를 남긴다. 노트에서, 이소가이는 이미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밝힌다. 그는 말더듬 때문에 자신을 남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며, 또한 이해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폐적 상태의 대인공포증에 빠져 있었다.(이 점에서 최와 이소가이는 닮았다.) 그런 그가 주인공에게 노트를 남기며,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주인공이 ‘최’라는 성을 가진 한국인 남자이다. ‘최’는 이소가이에게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각인시킨 인물이다. 자살한 어머니와 관련된 남자가 최였던 것이다.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동료였던 ‘최’의 친절과 다정함에 마음을 주고 있었고, 그 때문에 아버지는 최를 폭행, 어머니는 자살하고 만다. 하지만 이소가이는 어머니를 죽인 것은 아버지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소가이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할아버지)를 증오, 그에 대해 살부(殺父) 충동을 느끼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거의 학문이 없네. 할아버지가 주태배기라 그 슬값 때문에 어

학회, 1999, 234-252면).

14) 김학영, 하유상 역, 『소설집-얼어붙은 입』, 화동출판사, 1992, 205면.

렸을 때 아버지는 늘 가난하고 학교에도 만족하게 가지 못한 거야. 아버지는 불학무식하고 우매하지만 그 책임의 태반은,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어머니를 죽게 한 것은 아버지의 우매함에 있었다면 그 아버지의 우매함에 책임이 있는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와 더불어 할아버지도 격렬하게 증오하고 있다네.¹⁵⁾

자기혐오와 아버지(할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에 빠진 이소가이는 성병과 결핵을 치료하지 않은 채로 방치, 병이 위중해지자 어머니의 명일(命日)을 택해 자살한다. 과거 두 차례는 어머니의 슬픔 때문에 죽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쓸쓸함 때문에 죽는다고 노트에서 적고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이소가이는 아버지에 대한 살부 충동을 실행할 수 없어 그 자신을 살해한 것이다. 자살이란 타인에 대한 살해충동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만드는 ‘자기에로의 전향’(turning against self)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자기에로의 전향이란 공격적인 충동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¹⁶⁾

『얼어붙은 입』에서, 작가는 주인공과 이소가이를 말더듬이로 설정, 이소가이를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통해 자살에 대한 감추어진 내적 욕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작가 자신의 말더듬과 관련한 내면세계를 ‘나’와 이소가이로 양분해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는 지적처럼, 주인공과 이소가이는 서로가 분신이며, 동전의 양면처럼 닮아 있다. 주인공은 말더듬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이소가이는 자살을 한다. 주인공도 무의식의 심층에서 자살을 동경하지만, 말더듬을 벗어나는 ‘망아의 경지’를 꿈꾼다. “망아(忘我)의 경지-내게 있어서 그 망아의 경지란 결국 말더듬거림을 잊고 있을 때”이고, 그것은 이소가이가 자살로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처럼 나를 잊고 “참된 나 자신에 되돌아”오는 경지이다. 말하자면, 주인공에게도 자살은 말더듬이라는 굴욕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유

15) 위의 책, 126-127면.

16) 이무석, 『정신분석에의 초대』, 이유, 2003, 175면.

17) 김환기,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론」, 『일어일문학연구』 39, 한국일어일문학회, 2001, 11, 273면.

일한 통로인 셈이다. 이 작품 서두는 이를 넘지시 내보이고 있다.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금빛 광선이 원추형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 속에서 신이나 이소가이처럼 생각되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보드라운 광선으로 그를 에워싸고 고무하는 듯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작품 서두의 꿈의 감추어진 의미는 바로 주인공의 자살에 대한 잠재된 욕망인 것이다.

프란츠 파농에 의하면, 가족의 구조와 국가의 구조는 상동성을 가진다. 또한 한 국가 내의 군국화와 중앙집권적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를 자동적으로 출현시킨다.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문명화되었거나 문명화되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축소판으로 작동한다.¹⁸⁾ 따라서 이소가이의 자살을 불러일으킨 폭력적 아버지는 재일 한인사회를 핍박하는 폭력적 일본과 상동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의 가정 폭력은 일본이 한국인에 가한 국가적 폭력의 전치에 다름 아닌 것이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해도 덜 위협한 대상에게 옮기는 것을 가리켜 전치(displacement)라고 말하는데,¹⁹⁾ 『얼어붙은 입』에서의 아버지의 폭력은 따라서 재일 한인에 대해 폭력적인 일본과 일본 사회에 대한 알레고리라 할 수 있다. 작가가 『얼어붙은 입』 외에 「도상」, 「유리창」, 「알콜 램프」 등에서 아버지의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여기서 연유한다.

3. 정체성 갈등과 승화, 「나비타령」

1) 정체성 갈등과 피해망상

이양지(1955~1992)는 3세대 재일 한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비타령」을 비롯, 「유희」, 「해녀」 등 그의 작품 대부분이 자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1955년 아마다시현에서 태어난 그

녀는 9세 때 일본에 귀화한다. 1975년 와세다 대학 입학한 후 재일 한인 학생서클 ‘한국문화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가야금을 배웠고, 대학 중퇴 후 가야금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1980년 한국에 유학, 1981년 서울대 국문학과에 입학한다. 서울대 졸업 후, 이화여대 대학원 무용과에 입학하여 한국무용을 배우는 등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온몸으로 파악하는 데 열정을 쏟는다.²⁰⁾ 데뷔작 「나비타령」(1982)은 발표되자마자 아쿠타가와상 후보로 올랐으며, 『유희』(1989)로 제100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다. 1992년 *둘의 소리* (미완 유포작) 집필 도중 일시 귀국한 일본에서 짧은 생애를 마친다.

「나비타령」(1982)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두 가지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 전개가 이루어진다. 부모의 불화와 이혼소송에 따른 갈등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데서 비롯하는 정체성 갈등이다. 물론 이들 갈등은 이양지의 경험적 자아가 가졌던 갈등과 일치한다.

주인공 김애자(일본명 아이꼬)는 부모의 불화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다. 그녀와 그녀의 형제들은 부모 양편으로 갈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뿜는 자력에 끼여 균형을 잡지 못한 채 일그러지고 위축되어가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잡아 뿔듯이’ 집에서 뛰쳐나가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차라리 남남이라면 좋았을 그런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집은 가정이 아니라 ‘구제받지 못할 집’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의 이혼소송에 휘말려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두, 증오심으로 가득 찬 부모 양측으로부터 서로에 대한 비방을 들어줘야 한다. 재판은 ‘지루한 시간’이었고, ‘별거, 이혼, 위자료, 재산 분배, 친권자’ 같은 것들은 그녀와는 무관한 부모의 문제일 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뿜는 생명력, 이들 두 개의 커다란 자력에 끼여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나는 엎드려 아버지와 어머니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조그마한 자존심과 자기주장이 죄어오는 자력 사이에서 일그러지고 위축되어 간다. 나는 몸을 잡아 뿔듯이 집에서 뛰쳐나왔다. 크게 구멍이 뚫린 종업원실의 천장, 습기 찬 이불…….²¹⁾

18) 프란츠 파농, 앞의 책, 180면.

19) 이무석, 앞의 책, 175-176면.

20) 이양지, 「모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까지」, 『한국논단』 16권, 1990. 12, 214-231면.

21) 이양지, 「나비타령」, 『유희』, 삼신각, 1989, 295면. 이하 본문에서의 인용은 면수 밝히지 않

증인으로 출두한 법정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어머니에게 패소판결을 내리기까지 5년이나 걸린 이혼소송은 그녀를 더욱 피폐하게 만든 것이다. 별거나 재판 같은 절차 없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면 그만인 부모의 이혼 소송, 그래서 그녀는 “배우처럼 증인석에서 주어진 배역을 연기할 뿐”이다. 부모와 자식이며 혈연·골육 같은 것들은 관심이 없다.

가출 후, 주인공은 교토의 어느 여관 종업원으로 취업하는데, 이곳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엷드린 채 쥐가 떨어져 내리는 검은 천장을 겁먹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전전긍긍한다. 부모의 자력에서는 벗어났지만, ‘조센징’이라는 혈통적 콤플렉스는 족쇄처럼 움아매고 있었던 것이다.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비록 여관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조센징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는” 현실, 이것은 재일 한인들이 겪어야 했고 감내해야 했던 통과제의에 다름 아니다.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자, 그녀는 여관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 족쇄, 조선인의 혈통은 그것이 비록 일본인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결코 ‘구제받지 못할 집’이라 하더라도 ‘집 안에서 그녀 스스로 제거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녀는 “귀화해도 조센징은 조센징”일 수밖에 없는 사회,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인으로 사고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니혼징(日本人)이 될 순 없”는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한다. 민족 정체성이란 단지 국적의 문제만은 아니며, 따라서 귀화를 했든 그것을 거부했든 달라질 것이 없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녀가 가야금에 깊이 빠져드는 것 또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한다. 그녀는 가야금을 통해 말만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나라와 만난다. 가야금을 가르치는 한 선생택의 “방안에서 풍기고 있는 어렴풋한 마늘 내음, 김치 빛깔” 그것은 조국이고 민족이었고, 그래서 “가야금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장단(리듬)에 빠져 갔다.” 조국 또는 민족이란 관념적·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적·문화적인 것으로 인식, 마늘 냄새·김치·가야금 등을 통

고 “ ”로 표시함.

해서 혈통적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한 선생 택의 한정된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 그리고 가야금이 주는 일체감과 감동은 길거리로 나오면 곧 사라지고, 일본의 집요한 압박과 간섭에 숨이 막힌다.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를 더욱 옥죄어오기 때문이다. 그 압박감은 급기야 일본인에게 피살당하는 피해망상(delusions of persecution)과 환각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이러한 그녀의 망상과 환각은 일본인을 죽이고 싶은 내면적 동기에서 비롯한다. 바꿔 말하여,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일본인 살해 욕구가 일본인을 향해 투사(投射)²²⁾ 일본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에 빠져든 것이다.

니혼징(日本人)에게 피살당한다. 그런 환각이 시작된 것은 그날부터였다. 만원 전차를 탔을 때는 한 역씩 폼에 내려 상처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전차를 탔다. 홍수 같은 사람의 무리에 밀리며 역 층계를 내려갔다. 여기서 피살되어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객사하는 것이다. 겨우 무사히 내려갈 수 있다고 해도 다시 층계를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뒤에서 달려 올라오는 인파. 내가 층계를 하나 오르는 순간, 아래 있던 누군가가 내 아킬레스건을 끊는다. 나는 니혼징들에게 깔려 질식당한다. 어두운 영화관도 공포였다. 좌석에서 불쑥 나온 후두부가 날붙이에 찢려 머리가 잘린다고 느껴져 제대로 영화도 보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온다.²³⁾

일본인에게 피살당하는 공포심과 환각은 일본인 살해 충동으로 바뀌어져 주인공의 심리를 압박한다. 그녀의 이러한 양가적 심리는 ‘민족(한국)’과 국적(일본) 사이에서 갈등하는 2세대 재일 한인들의 정체성 혼란을 드러낸 것으로, 경계인 의식에 다름 아니다. 그녀는 병적일 정도로 심화된 피해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상의 유부남 마쓰모토와의 성애에 집착한다. 하지만 마쓰모토와의 성애 또한 “니혼(日本) 남자를 범하고” 싶은 왜곡된 의도가 작용하는 일

22) 피해망상이란 타인이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 편집증의 일종으로, 타인을 적대하려는 자신의 내면적 동기로 발전하여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이른바 투사(projection)의 극단적 형태이며, 투사란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 느끼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메카니즘이다. 이에 대해서는 Kagan & Havemann, 김유진 외 공역, 『심리학개론』, 형설출판사, 1983, 394면 참조.

23) 『나비타령』, 312면.

본인 살해 충동의 변형에 지나지 않으며, 그래서 그녀는 성애에도 몰입할 수가 없다. 그녀는 “소심하지 않다는 것을 또 하나의 나에게 보이려는 듯이” 강박적으로 애무를 반복하지만, 오히려 “머리끝까지 꿰뚫는 수치심”만 엄습한다. 그녀에게 가야금과 가야금 선율은 민족이고 민족정체성의 표상이지만, 성애의 대상인 마쓰모또라는 일본 남자에게는 그녀의 ‘살결’에 나지 않은 것처럼, 일본에서의 그녀는 ‘김애지’가 아니라 ‘아이꼬’일 뿐이다. 그녀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것은 ‘김애자’이고 싶은 갈망 때문이다. 부모는 이혼소송 중인 부모,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둘째오빠,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본인 유부남의 애인을 자청하고 그와의 성애에 집착했지만, 일본에서 ‘아이꼬’로 존재하는 한 그녀는 결코 ‘김애자’가 될 수 없다고 자각한 것이다. “한국에 안 가면 죽어버릴 것” 같고, “이젠 모두가 너더러가 나”는 일본에서 도망치듯 결행하는 그녀의 한국행은 따라서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려는 민족적 자각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에서 또 다른 벽에 부딪친다. “안 가면 죽어버릴 것” 같아 찾아가는 한국이지만, 알맞은 발음을 하는 재일 동포인 그녀가 “마음 편하게 가야금을 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현실이 그것이다. ‘우리말’인 한국어를 잘 하고 싶고, ‘우리나라’ 한국에 다가가고 싶지만, 그녀는 이미 일본어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식 습관과 사고방식이 일상생활 속에서 몸에 배어 있고, 오히려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이질감을 느끼는 ‘재일 동포’ 2세대인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일본’에도 겁내고 ‘우리나라’에도 겁나서 당혹하고” 있다. 좋아서 이런 알맞은 발음이 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태어나 25년 동안 살아온 것 또한 그녀 스스로 선택한 일은 아니지만, 그녀는 한국인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굴에서 불이나듯” 부끄럽기만 하다. 한국에서 재일 동포라는 ‘이방인’으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확인한 것이다. “어디로 가나 비(非)거주자-찌그러진 몸을 이끌고 부유하는 생물”로 인식하며 갈등에 휩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녀의 근원적 갈등은 일본에서는 일본인이 될 수 없다는 이질감을,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타자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계인 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2세대 재일 한인이 겪고 있는 민족정체

성 혼란의 연원이다.

2) 판소리, 가야금, 살풀이춤으로의 승화

나비타령」에서, 주인공은 살풀이춤을 보고 숨 쉴 수 없는 몰입과 일체감을 느낀다. 그리고 살풀이춤을 추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치 몸 안에 이미 있던 장단이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던 무엇이, 애타게 기다리며 숨어 있던 무엇인가가 춤출 때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일체감을 느낀다. 마침내 그녀는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으로 존재하던 민족적 장단을 체험한 것이다. 이후 그녀는 판소리에서 득음의 경지를 경험하고, 가야금 연주에서도 좋은 음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민족의 가락과 일체감을 느끼는 황홀함에 젖어 있던 그녀는 둘째오빠 사망 소식을 듣고, 하숙집 지붕에 올라가 살풀이춤을 춘다. “살풀이의 살(煞)은 한(恨)이고, 풀이는 그것을 풀다.”는 살풀이춤을 통해 가족들로부터 받은 개인적 한과 재일 한인으로서 자신이 겪은 민족적 한을 모두 풀어내고자 한 것이다.

가야금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얀 나비가 날기 시작한다. 나비를 눈으로 따르면서 나는 살풀이춤을 추었다. 끊임없이 가야금은 울동하고 불어대는 바람 속에 수건이 날아올랐다.²⁴⁾

환상 속에서 춤을 추는 나비는 그녀 자신이다. 그녀의 “춤사위는 애절하면서 무아의 경계를 넘나드는 절박함에서 오는 자유이며 평온”이고, 그녀의 춤은 “죽은 자를 위로해줄 수 있고 자신의 의식마저 편안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세계로 다가서”는²⁵⁾ 해원(解冤)의 춤이다. 그 후, 그녀는 마쓰모또에게 이별의 편지를 보내고,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판소리 「사랑가」를 부른다. 그녀는 ‘알맞은 발음’으로 말하는 이방인 ‘재일 동포’가 아니라, 살풀이 춤사위와 장단을 몸으로 익힌 일본 국적의 한국인으로 거듭난 까닭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경계인이 아니다. 얼었던 양손에 힘이 솟

24) 『나비타령』, 349면.

25) 김환기, 『이양지문학론-현세대의 ‘무의식’과 ‘자아’ 찾기』, 『일어일문학연구』43, 2002.11, 306면.

고 어깨가 들먹거리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국적과 민족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으로 방황하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그녀는 피해망상과 살해충동의 정신병의 경계에서 벗어나서 판소리·가야금·살풀이춤이라는 새로운 대상리비도를 통해서 승화(sublimation)를 이룬다. 승화란 본능적 욕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 에너지를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사용하는, 건전하고 건설적인 방어기제이다. 승화는 다른 방어기제와는 달리 이드(id)를 반대하지 않으며 자아의 억압이 없고 충동 에너지를 그대로 유용하게 전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리비도를 집중시켰던 유부남 마쓰모토와의 이별은 당연한 귀결이다.

나비타령』에서, 주인공이 겪는 피해망상과 환각, 그리고 일본인 살해 충동은 민족 콤플렉스에서 연유하는 정신병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모국에 와서 판소리·가야금·살풀이춤 등을 배우면서 민족정체성을 복원, 한국인으로 '재생'하면서 치유된다. 예술을 통한 승화와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진 것이다. 작가 이양지는 「나비타령」을 통해 소설가로도 데뷔, 다시 한번 승화를 추구한다.

4. 결 어

이 글은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과 이양지의 나비타령』에 나타난 정신병리에 주목, 이것이 재일한인 2세로서 겪는 정체성 갈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얼어붙은 입』은 말더듬·우울증·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재일 한인 2세를 주인공을 통해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 갈등하는 2세대 재일 한인의 정체성 혼란을 내보이고 있다. 말더듬은 과거 일본의 만행과 현재 일본의 민족적 차별에 대한 억압된 분노, 일본인의 왜곡된 우월감이 빚어낸 무력감 등 민족콤플렉스에서 비롯하는 신체적 장애로, 일종의 전환(conversion)이다. 또한, 주인공의 자살에 대한 내적 욕망은 우울증의 극단적 형태이다.

나비타령』은 이양지의 자전적 소설로, 부모의 이혼 소송과 '조센징'이라는 혈통적 콤플렉스로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는 젊은 여성을 그려 보인다. 주인공은 피해망상과 환각, 일본인 살해 충동에 사로잡힌 정신 병리를 판소리·가야금·살풀이춤 같은 민족예술을 통해 치유, 민족적·개인적 한을 모두 풀어낸다. 민족예술을 통해 승화와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복원한다.

이들 작품은 정신병리로 시달리는 주인공을 통해 2세대 재일 한인의 정체성 혼란을 다루고 있는데, 『얼어붙은 입』은 끝내 말더듬·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물을, 「나비타령」은 민족예술을 통한 승화로 민족정체성을 복원하는 인물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주인공의 정신병리는 일본의 폭압적 차별과 여기서 비롯하는 민족콤플렉스의 결과적 현상에 다름 아니며, 민족정체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바, 이들 작품의 문학적 성과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김학영, 이양지, 『얼어붙은 입』, 「나비타령」, 정신분석, 탈식민주의, 프란츠 파농, 재일 한인

< 참고 문헌 >

<기본자료>

- 김학영, 하유상 역, 『얼어붙은 입』(『한국문학』 1977. 9. 별책부록), 한국문학사, 1977.
 이양지, 김유동 역, 『나비타령』, 『유회』, 삼신각, 1989.

<논저>

- 고부웅, 『초민족시대의 민족정체성』, 문학과지성사, 2002.
 김영하, 『넓어지는 민족의식』, 『문학과 비평』18, 문학과비평사, 1991.6.
 김원우, 『주변문학으로서의 망향·열등감·소외』, 『일본학』19,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00. 12.
 김종희 편,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김환기, 『김학영 문학과 '벽'』, 『일본학』19,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00.12.
 _____,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론』, 『일어일문학연구』39, 한국일어일문학회, 2001.11.
 _____, 『이양지 문학론-현세대의 '무의식'과 '자아'찾기』, 『일어일문학연구』43, 2002.11.
 변화영, 『문학교육과 디아스포라-재일한국인 이양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9.
 신은주, 서울의 이방인, 그 주변, 『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3, 한국일본근대문학회, 2004.
 심원섭, 『<유회> 이후의 이양지-수행으로서의 글쓰기』, 『일본학』 19,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00.12.
 _____, 『재일 조선어문학연구 현황과 금후의 연구방향』, 『현대문학의 연구』29, 한국문학연구 학회, 2006.7.
 유숙자, 『재일한국인문학』, 월인, 2000.
 _____, 『김학영론』, 『비교문학』24, 한국비교문학회, 1999.
 윤상인, 『전환기 재일한국인 문학』, 『일본학』19, 2000.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2003.
 이양지, 『모국유학을 결심했을 때까지』, 『한국논단』16, 1990.12.
 이한창, 『재일교포문학연구』, 『외국문학』1994년 겨울호, 1994.12.
 _____, 『재일동포문학에 나타난 부자간의 갈등과 화해』, 『일어일문학연구』60, 2007.2.
 _____, 『재일 교포문학의 주제 연구』, 『일본학보』29, 한국일본학회, 1992.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한일관계사학회,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자작나무, 1998.

- 한일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
 황봉모, 『이양지론-한국에서 작품을 쓴 재일 한국인』, 『일어교육』 32,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5.
 Bart Moore-Gilbert, 이경원 역,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1.
 Frantz Fanon,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Kagan & Havemann, 김유진 외 공역, 『심리학개론』, 형설출판사, 1983.
 Leela Gandhi, 이영욱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Abstract]

The Study on the Novel of Korean-Japanese;

Focus on the Novels by Kim Hak-Yung and Lee Yang-Ji

Song, Myunghee · Chung, Dukjoon

This paper was written on purpose to analyze how the psychopathology which was shown on Kim, Hak-Yeong's *The Frozen Mouth* and Lee, Yang-Ji's *The Butterfly Ballad* was related to the identity conflict which a second-generation Korean-Japanese suffered.

Kim, Hak-Yeong created a second-generation Korean-Japanese who was a stammerer as a hero in *The Frozen Mouth*; the stammer is the handicap, that is, a kind of conversion which was made by the trauma, "Josenjing" which is the contemptuous word about Korean-Japanese. That makes the hero plummet into depression, and feel the impulse to kill himself. The hero comes at a true knowledge of the cruelty of the time when Japan put Korea under its colonial rule and the discrimination which Japanese make to Korean-Japanese through reading books. So his surge of anger and the feeling of helplessness that he can do nothing about the contempt and the discrimination which Japanese make to Korean make him become a stammerer, a melancholia, and feel the impulse to kill himself.

Lee, Yang-Ji described the young woman who suffered from divorce suit between her parents and the identity conflict that she is "Josenjing" in *The Butterfly Ballad*. The heroine suffers from a psychopathic disease, so she tries to escape from reality through leaving home and a illicit relationship with a married man, and she suffer from not only the persecution mania that she is killed by Japanese but also the feeling of impulse to kill Japanese.

After she escape from Japan, she gets a new trouble because her sense of shame that she cannot speak Korean well and her pride that she is a Korean-Japanese are pitted against each other. But her private grief which she experienced in the family and her racial anger which she suffered as a Korean-Japanese are all healed up through the exorcism dance. She acquires her identity firmly and experiences the sublimation and catharsis through the racial arts like gayageum, pansori, and exorcism dance.

The two abovementioned novels all show the hero or heroine who suffers from the identity conflict of second-generation Korean-Japanese, finally gets psychopathic disease, but there is a gap between the two. Kim, Hak-Yeong described the hero who could not overcome his obstacles like stammer, melancholia, and feeling of impulse to kill himself. On the other hand, Lee, Yang-Ji described the heroine who not only disentangled her problem through sublimating her conflict in racial art but also acquired her identity.

Key words : Kim Hakyung, Lee Yangji, The Frozen Mouth, The butterfly ballad, psychoanalysis, postcolonialism, Frantz Fanon, Korean-Japanese

송명희

부경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전자우편 : songmh@pknu.ac.kr

정덕준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번지

전자우편 : djchung@hallym.ac.kr
